

장수군, 향토인재 양성 앞장

애향교육진흥재단, 성적우수 고교·대학생 84명에 장려금 지급

장수군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정책이 향토인재 양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용득)은 18일 장수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성적 우수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날 재단은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 경감과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적이 우수한 관내 고등학생 43명, 대학신입생 22명, 대학재학생 17명, 저소득주거자녀 2명 등 총 84명을 선발해 1억4천3백여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장수군은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과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지역주민, 출향인사, 기관사회단체의 기부와 뜻있는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기금 71억을 조성, 장수미래교육의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지역외출인재육성사업으로 관내 중고생을 위한 장수품의학당과 장수학당을 지원하고 초등 기초학력향상 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려금 전달식에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로그램 운영지원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북 최초 대학 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과 글로벌 해외연수지원 등 지식정보화의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앞장서왔다.

또한 특성화고교 육성지원, 방과후 논개가 판소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수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내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대학진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시설확충 지원사업을 시행,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마을 통통축제' 속으로

27일 고산면·내달 25일 이서면서 개최

사)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대표 이재갑, 이하 완생동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16 문화가 있는 날, 우리동네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에 선정돼 6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마을 통통(通通) 축제를 개최한다.

마을통통(通通) 축제는 통(通)을 컨셉으로 동부산악권(고산 인근 6개면)과 남부지역(이서면, 구이면, 상관면, 소양면)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이 협력하여 마을 축제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이다.

주민예술가 등 완생동네 회원들의 공연, 주민프리마켓, 체험학교 등을 개최하여 신도시 이주민들과 원주민간의 소통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정은 오는 4월 27일 동부산악권의 중심 고산면을 시작으로, 5월 25일은 이서면 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완생동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마을통통(通通)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 단체와 문화소외계층이 함께하는 재능나눔활동을 실현함으로써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식중독 예방 캠페인

진안군은 18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위생계 직원 등이 합동으로 행사관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왕래가 잦은 터미널에서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을 강조한 주방용품 홍보물과 물티슈 등 전단지

를 배부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 및 모든 음식에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권유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로 개선되도록 진안시장 상인 및 진안군민에게 홍보했다.

박현숙 위생담당은 "15일부터 22일까지 진안군 관내 음식점을 순회하며 청결하고 친절할 업소가 되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어린이들과 함께 적상산 자락에 편백나무를 심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적상산 자락에 '탄생숲' 조성

어린이들과 편백나무 심어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숲 행복과 희망을 찾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탄생숲을 조성했다.

이번 탄생 숲 조성은 관내 어린이 20여명(예뽀어린이집)과 가족 등이 참석하여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적상산 자락에 편백나무를 식재했다.

탄생숲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탄생목을 심어봄으로써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하고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다양한 산림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중소장은 이번 심은 나무가 크고 울창한 숲으로 자랄 수 있도록 숲 가꾸기 체험 등 4월 한달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신소득 작목 개발 박차

수박 2줄기 유인 방입재배 기술 도입 등

진안군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소득 농사로의 전환을 위한 신소득 도입 등 신소득 작목 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진안고원 특유의 서늘한 기후특성으로 흉수출하를 피해 여름철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박에 '3줄기 중 2줄기 유인 방입재배' 기술을 도입하여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고, 기존의 노지 천마재배에서 피트

모스, 코코피트 등 가벼운 배합상토를 이용한 시설하우스 천마재배로 전환하여 고품질 천마 생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존 추석사과로 알려진 조성종 홍로와 저장성이 좋은 후지 위주의 사과 품종에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단하고 진한 붉은 색의 국내 육성 사과 '아리수' 품종을 시범 도입하여 로열티 절감을 위한 품종전환을 유도 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반농사인 고추와 감자, 고구마, 잡곡류에 비해·전시포를 조성함으로써 진안고원 우위 신소득 도입을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핵가족 소비트렌드를 겨냥한 농산물 소포장을 개선하고 소파류 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해외 식물자원인 '히카마'와 '아마란스'를 도입하여 농가단위 재배를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마을축제에 경관작물로 이용 관광객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내달 14일까지 재난상황실 운영

무주군이 한 발 빠른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활동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6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한 군은 5월 14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우선 취약시설 점검에 나선다.

여름철 자연재난 안전 대책 기간에 13개 부서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재난상황

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력과 물자를 확보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위함 지역 순찰과 만일의 상황 시 구조 활동을 펼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책임자를 피해 우려지역에 전진 배치한다는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재해유형별 국민 행동요령

과 사유재산 피해지원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무주군 홈페이지와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군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기동감시반을 운영하고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 취약지역 집중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안전재난과 재난방재 라동석 담당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을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화상담
063-430-2951

특별블로그

무주군, 청년·중장년 취업지원

무주군이 '청년 및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은 인력 및 취업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기업 중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고용보험 가입 기업)이며 상시 고용인원 이외에 추가로 채용하고자 하는 곳(수습 3개월, 정규직 전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만 25~39세의 미취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사업으로는 월 160~2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업체에 월 50~80만 원(인당)씩 차등 지원되며, 만 40~59세의 미취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사업을 통해서도 월 급여 130만 원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에 12개월 간 월 60만 원(인당)씩 지원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미취업자들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자 기업에게는 인력과 경력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에서는 지역의 건설하고 유망한 기업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 독려에 혼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 및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 접수는 무주군 산업경제과 일자리 담당(063-320-2383)에서 받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18일부터 21일까지

공무원 대상 드론교육 실시

완주군은 과학적이고 능동적으로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 영상촬영을 통한 축제 및 각종 행사 홍보 등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18일부터 21일까지 군청 5층 정보화교육장 및 군청 앞 광장 일원에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한다.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로 처음엔 군사용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상업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각종 업무 등에 드론을 접목하여 재난방지 및 농업, 영상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드론 교육은 총 4일 동안 이루어지며, 2일은 이론교육, 2일은 실기교육으로 강사는 전주 비전대 김지홍 교수와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류지형 연구원이 각각드론 기초이론 및 드론 활용사례, 실기교육 등 순으로 진행한다.

김현수 행정지원과장은 "최근 드론이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산림 및 재난 예방, 환경감시 및 농업 등으로 사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드론교육으로 각 부서 업무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군민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

장수군은 보호수 생육상태가 불량한 보호수에 대해 이달 말까지 외과수술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수 정비는 너티나무 등 총 3본으로 군은 1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육환경 개선, 뿌리·수간 부위 부패방지를 위한 외과수술 등을 시행하고 동공이 발생해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나무에 대해 외과수술과 영양공급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생육상태가 불량한 보호수는 토양 개량, 영양공급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해 보호수가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호수는 보통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고사 및 절실이 담긴 수목이나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을 대상으로 보호수로 지정된다. /장수=고관호 기자